

## “미 해수면, 앞으로 30년간 30cm 상승”

앞으로 약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 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 대기국(NOAA)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안 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10~12인치(25~30cm)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다. 이는 1920~2020년 100년 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이다.

NOAA는 2100년까지는 상승 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210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NOAA는 또 2050년에 보통 규모의 홍수가 오늘날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면 연구 권위자인 NOAA의 해양 학자 윌리엄 스위트 박사는 "더 많은 지역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거리에 물이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강한 폭풍우가 연안 지역 홍수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해수면 상승에 따라 만조로 바닷물이 빗물 배수관에

서 역류하면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이나 대서양에 면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맑은 날에도 일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

스위트 박사는 전 세계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다 해도 향후 30년간 해수면의 해수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참여과학자연대(UCS)' 소속 기후과학자 크리스티나 달은 "해수면 상승이 고정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별도로 수행한 연구에서 해수면이 2050년까지 25~30cm 상승하면 약 14만 가구가 평균 격주로 물에 잠기는 '만성적인 침수' 위험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릭 스펀래드 NOAA 국장은 "이 보고서는 미국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미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극장 가고 외식하지만 사무실 복귀는 꺼려”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외식도 하고 극장에도 가고 스포츠 경기도 관람하지만, 재택근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사무실 복귀는 여전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출입증 사용 기록을 추적해 사무실 복귀율을 발표하는 정보업체 캐슬 시스템을 인용해 미국 10대 도시의 2월 첫째 주 사무실 출근율은 평균 33%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던 1월 초의 23%에 비하면 상당히 오른 수치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 4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다른 외부 활동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캐슬이 업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관 관람은 2월 첫째 주에 코로나19 대확산 이전의 58% 수준을 회복했고, 외식은 팬데믹 이전의 75% 가량, 항공 여행은 80% 가량 수준을 각각 나타냈다.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현장 관람은 2020년 2월의 93%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인들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염 우려와 같은 보건상 이유 말고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2년 가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복귀보다는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무실 근무는 출퇴근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들은 재택근무가 기업문화 조성이나 협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종용을 꺼리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실 복귀를 종용하면 직원들이 그만둘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만큼 또는 심지어 그보다 생산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가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를 존중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했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원격근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꽤 괜찮게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바꿀 현실적인 긴급성이 없다."고 말했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 띠별 운세

2월 21일 ~ 2월 27일, 2022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21, 24, 25

여자 길일 : 22, 23, 26, 27



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



주변 사람들과 단결이 잘되므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여도 순풍에 둑단 듯 어려움 없이 발전합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안으로는 견실하니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성심으로 노력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면 교만과 낙타에 빠지기 쉬우니,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위아래의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구의 덕을 허락해 자신의 처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안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애정○건강△



겨울에 얼어붙었던 것이 새봄을 맞이하여 풀리는 형국입니다. 좋은 협조자를 얻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활동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뜻을 세워 노력하면 순조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이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길합니다. 또한 땅이 만물을 포용하는 거처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곧게 가지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안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심신이 부패해지는 법.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신중한 계획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바로잡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피르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크게 혁신해지는 법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왕성한 의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넓은 이랑으로 밝은 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불은 격렬한 성질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동을 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흘어져 집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전○애정○건강△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로서, 물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일,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건실한 마음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금전○애정△건강○



분주하게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사소한 문제는 보류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금전○애정○건강△



포용성,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덕을 쌓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기겠으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이거나 교육자라면 특히 대길한 운세입니다.  
금전○애정△건강○

가문 대지에 골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